



서울대학교 시카고 동창회 소식

SNUAA-Chicago e-Newsletter

www.snuachicago.org; snuachicago@gmail.com

회장 인사



존경하는 서울대 시카고 지역 동문 선후배님들께,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COVID-19 Pandemic 으로 가정과 직장, 온세계가 The New Normal 에 적응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동문님들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금년도 회장직을 무거운 마음으로 맡았습니다. 선임 회장님들과 이사님들이 이루어 놓은 우리 동창회의 전통을 이어 나가고자 새로운 각오와 함께 첫 임원회를 치렀습니다. 이어 제 1 차 이사회 준비를 마치고 이사님들께 통보를 보내고 난 직후 Pandemic 이 계속 돼 계획했던 행사를 하나 둘 취소해야 했습니다. 결국 동창회 전체 행사는 물론 이사회 모임까지 모두 취소됐고 그간 Newsletter 도 발간하지 못하게 돼 송구하기 그지 없습니다.

역경에도 불구하고 골든클럽은 3 월까지 매달 첫 목요일에 모였고, 두 달 공백기를 가진 뒤 6 월부터 12 월까지 Zoom 사이버미팅을 통해 모임을 이어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9 월에는 야외에서 점심을 함께 하고 호숫가 산보로 친목을 다졌습니다. 관악클럽 역시 정기모임은 2 월에 이후 더 진행하지 못했지만 대신 온라인에서 '스와재'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스페인어와 은퇴준비를 위한 재테크 공부를 병행해왔습니다. 이렇게 활력있게 클럽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대견스럽습니다. 이외 동문 전체를 위한 동아리로 독서클럽이 2 회에 걸쳐 온라인 화상모임을 재미있게 가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행사들이 동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취소돼야 했지만 장학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2019 년 장학금을 \$2,000 로 올린 뒤부터 장학생 응모수는 물론 훌륭한 학생들도 더 많이 응모해 장학선발위원들이 우열을 가리는 데 고심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장학사업은 우리의 2 세와 후학들이 한국인의 후예로서 자부심을 갖고 큰 꿈을 품은 채 이 사회의 역군으로 성장하는 데 격려와 힘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본 동창회의 사명이자 자랑인 장학사업을 위해 금년에도 18 분이 총 \$14,120 을 후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합니다. 제가 관리위원장을 맡았던 2012-13 사이 장학기금이 \$82,000 에서 \$112,000 으로 늘어난 바 있고, 금년도 장학금 \$26,000 지급 후에도 12 월 현재 \$179,000 으로 매년 기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동창회의 장학사업은 확고한 재정을 기반으로 차세대 동창회에서도 구심력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러일으킨 사명감으로 전통을 이어가리라 믿습니다. 내년에는 늦어도 하반기부터 동창회가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장윤일 드림

2020 년 동창회 임원진

| | | | | | |
|------------|---------|-----------|--------------------------------------|----------|---------|
| 회장 | 장윤일 | 수석부회장 | 김윤하 | 부회장 | 황치룡 장영수 |
| 총무 | 김훈태 | 재무 | 박창용 | 섭외 | 김동엽 |
| Newsletter | 봉윤식 | Webmaster | 김호범 | 골프 | 김동희 신택수 |
| 사진 | 김수현 홍청일 | 특별간사 | 박종희 이소정 | 감사 | 김호범 이동균 |
| 장학기금 관리위원장 | 구경회 | 골든클럽 회장 | 연경자 | 관악 클럽 회장 | 김동엽 |
| 고문 | 역대 회장 | 동아리 모임 | 음악(이영우) 미식가(김영호) 독서(홍혜례 박종희) 댄스(황찬주) | | |

2020 년 이사진 및 분과위원회

2018-20 강영국(수) 강창만(의) 광영로(수) 김사직(상) 김선웅(공) 김승주(간) 김영자(간) 김영호(의) 김용주(공) 김정주(문)
이사 김준우(의) 김학수(공) 김현석(문) 노영일(의) 박영준(문) 박장열(공) 원인숙(간) 이승자(사) 이종일(의) 임현재(의)
전현일(농) 정성일(공) 정승규(공) 조형원(약) 최길용(문) 최희수(문) 홍청일(약)

2019-21 강원민(문) 김연화(음) 김용성(상) 김윤태(의) 김호범(상) 문병훈(사) 박동수(문) 박 숙(의) 박연희(보) 소진문(치)
이사 연경자(약) 이동균(공) 이성우(농) 이용락(공) 이재호(공) 이정일(농) 장기남(문) 장영수(공) 장항순(의) 정 호(공)
정희자(미) 조규승(문) 조대현(공) 조봉완(법) 조중행(의) 한경진(상) 한의일(공) 한재은(의) 홍혜례(사)

2020-22 구경회(의) 김길중(의) 김동희(공) 김병윤(문) 김성범(상) 김윤하(공) 김재환(사) 김택겸(공) 박영규(농) 박창만(공)
이사 백준철(공) 서승환(치) 신석균(문) 양덕주(문) 오병진(의) 왕진한(공) 유희두(사) 윤봉수(간) 이건정(공) 이영우(문)
이정숙(간) 이창호(공) 장윤일(공) 최의필(의) 한상호(의) 홍하웅(자) 황치룡(문)

당연직이사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각 단과 대학 대표: 간호대 (안인숙) 공대 (이동균) 문리대 (박영준) 사대 (김동엽)
의대 (안창현) 음대 (김연화) 치대 (소진문)

장학기금 관리위원회 2018-20: 구경회 박창만 2019-2021: 한경진 2020-2022: 정승규 한의일 당연직: 회장, 회계

장학생 선발위원회 이승자 황치룡 김연화 이성우 홍청일 윤봉수 유희두 김택겸 이창호 김용성 당연직: 회장이 위원장 겸임

차차기회장 인선위원회 김병윤 홍혜례 한경진 정승규 황치룡 정성일

미주총동창회 평의원 장윤일 김윤하 홍혜례 김정수 연경자 김동희 이영우 황치룡

1 차 임원회 2 월 16 일 쌍룡중식당에서 guest 포함 28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새 임원진 및 이사회 추천 예정인 신임 이사진을 소개했으며 이외 행사 계획, 예산 편성, 이사회 및 연말 총회 장소 선택 등을 논의했다. (아래 사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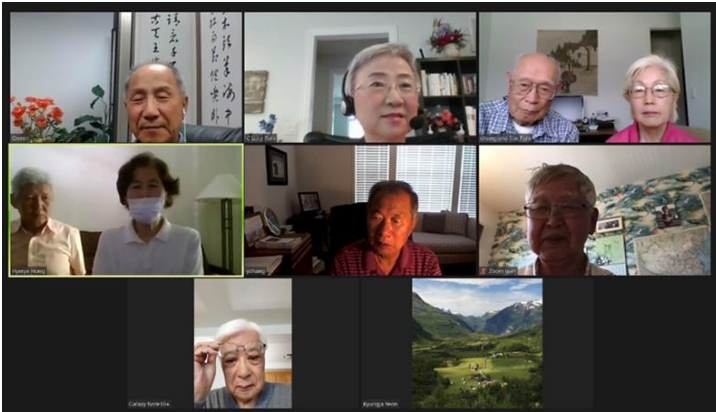
금년도 행사계획 취소 제 1 차 임원회를 가진 후 닥친 COVID-19 Pandemic 으로 인해 봄/가을 이사회, 봄/가을 골프 대회, 야유회, 연말 총회 겸 송년회 등 대부분 행사가 취소됐다. 하지만 각 동아리 모임, 골든클럽, 관악클럽 등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 행사를 on-line 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해왔다.

음악동아리 (이영우) 음악 동아리는 내년 7 월 말이나 8 월 초 토요일 Ravinia 야외음악회에서 좋은 program 을 골라 picnic 을 할 계획이다. COVID 때문에 내년에도 음악회를 개최할지, Program 은 어찌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관계로 정확한 날짜는 내년 2 월 말경 결정할 예정이다. Ticket 은 각자 구매하고 음식과 와인은 예년과 같이 동창회에서 준비한다.

미식가 동아리 (김영호) 지난 몇 년간 동아리 명칭을 존중(?), 평소 접하기 어려운 음식을 시도하고자 노력했다. Ethiopian, Mediterranean, Beer/Cocktail 전문, Wine Tasting, Seafood 등으로 분야를 정해 맛집을 찾아갔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동문들이 함께 할수 있는 곳을 방문할 계획이다. Chinatown, Greek town, 한국음식 등을 시도하거나 각 Neighborhood 를 중심으로 Hyde Park, Naperville, Schaumburg, Glenview 지역 등을 순회하며 저렴하고 popular 한 곳을 찾아갈 예정이다.

댄스 동호회 (황찬주) 댄스동호회, "A walk in the Clouds" 는 올해 4 월부터 모임을 열지 못하다가 6 월부터 회원 중 원하는 경우에 한해 매주 수요일 온라인 강습을 진행했다. 많으면 3 쌍까지 참여하며 왈츠, 스윙, 룸바를 강의하고 연습했으나 아무래도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은 쉽지 않아 당분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코비드 19 상황이 종료되는대로 현장 모임을 재개할 계획이다.

독서클럽 (홍혜례, 박종희) 7 월 11 일에 1 차 모임을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했다. 아래 두 소설에 대한 감상을 나누고 토의했다. "The Foreign Student" by Susan Choi (1998); <한국어 번역판> "외국인 학생" (수잔 최 작가, 최 인자 옮김, 문학 세계사, 1999) 와 "The Old Man and the Sea" by Hemingway (노인과 바다). 11 월 14 일에 2 차모임을 다시 화상회의로 만나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었다. "리진" (전 2 권, 신경숙, 문학동네), "The Court Dancer" (영역분) 과 "The Tattooist of Auschwitz" (Heather Morris, Harper 2018).



관악클럽 (회장: 김동엽, 총무: 김수현) 금년 2, 4, 8, 10 월에 정기 모임을 계획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2 월 정기 모임 이후 모든 행사가 취소됐다. 2021 년 코로나 사태가 진정돼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연 4-5 회 정기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여름에는 낚시터, 10 월에는 김동엽 회장 자택에서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

2 월 정기 모임은 우리마을에서 가족 포함 총 19 명이 모였다. 다섯 가정은 식사 후 노래방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헤어졌다. 참석 동문 가정 - 김동엽 (사대 86), 김수현 (생활과학대 98), 황찬주 부부 (문리대 84), 봉윤식 (사회대 96) + 자녀 3, 신택수 (의대 88), 조현아 (사회대 88), 홍석중 (자연대 86) 부부, 서정은 (인문대 04) 부부 + 자녀 1, 김훈태 (사회대 84) 부부, 류민정 (화학 98)



관악클럽 공식 동아리는 아니지만 회원들의 온라인 비공식 모임 '스와재'가 결성돼 주 1 회 총 6 가정이 스페인어와 은퇴준비를 위한 재테크 공부 모임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골든 클럽 (회장: 연경자) 골든클럽은 회원들 간의 친교 및 유익한 상식 공유를 위해 매달 모이고 있다. COVID-19 때문에 1, 2, 3 월은 실내에서, 6 월부터는 Zoom 으로 모임을 계속 이어갔다.



이어 9 월 17 일에는 Northbrook 소재 Wood Oak Park 에서 CDC 지침을 준수하며 회원들간의 outdoor 친목모임을 가졌다. 회장단에서 마련한 도시락 점심과 함께 호숫가 산책에 25 명이 참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세종문화회 (공동회장: 전현일, 오유심, 사무총장: 박종희)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미국에 뿌리 내리게 해 미국 문화의 다양성 강화에 기여, 후세 한인 뿐 아니라 모든 미국민들이 이를 접하고 즐길 수 있게 함이 목적이다. 2004 년도 1 차 서울대 시카고 동창회 이사회 결과 (당시 회장: 전현일) 탄생한 세종문화회가 올해로 17 번째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다. 금년에는 COVID19 으로 인해 모든 프로그램들을 Online 으로 실시했다.

미국과 캐나다를 대상으로 15 번째 한국 문학을 소개해 오고 있는 세종작문경연대회에는 금년에 1,202 명이 참가했다. 이 중 수필부문 청년부와 고등부에서는 황순원의 “학”을 주제로 했고, 초중등부에서는 한국의 전래동화를 주제로 삼았다. 시조 부분에서는 경연 대상에 성인부를 추가, 학교 교사 및 기 활동 중인 시인들도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모든 수상작들은 세종문화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sejongculturalsociety.org/writing/past/2020/entries.php>)

세종문화회는 더 많은 미국 학교들이 시조를 정규 수업시간에 가르치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교사들을 위한 시조 워크샵과 온라인 시조 강좌를 계속해오고 있다. 지난 7 월에는 한국 국제교류재단의 후원으로 인디애나 대학과 시조 웨비나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 행사에서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대학 교수 35 명이 참가, 시조 뿐 아니라 한국의 문학 및 역사를 학습했다. 참가 교사들에게는 각자 학교에서 시조 수업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 지원금과 무료 시조 참고도서를 제공했다.

한편 시조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미국 교사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 월부터 매달 온라인 클래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 수업은 Wisconsin Arrowhead High School 의 Elizabeth Jorgensen 교사와 Lucy Park (박종희) 사무총장이 담당하고 있으며 운영비 관련 재외동포재단에서 일부 재정지원을 받는다. 내년에도 클래스를 지속할 계획이다.

(<http://www.sejongculturalsociety.org/events/2020/online.php>)

세종음악경연대회는 한국적 음률이 들어간 곡을 지정, 연주하게 해 한국적 정서와 얼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금년까지 17 번째 실시하고 있으며 COVID19 때문에 올해는 부득이 하게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했다. 지난 10 월에 열린 피아노와 바이올린 경연대회에는 하와이, 애리조나, 워싱턴, 텍사스 등 미국 전역에서 총 215 명이 참가, 명실 공히 전국적인 음악경연대회로 확대됐다. 수상자 연주회는 각 연주자의 동영상을 모아 Virtual Concert 로 진행했다.

(<http://www.sejongsociety.org/videos/index2020.htm>)

또 한가지 기쁜 소식을 전한다. 지난 17 년 동안 세종음악경연대회 Planning Committee 에서 수고해온 이소정 동문(음 84, Judson University 교수)이 새로운 음반을 공개했다. “From East to West” 라는 타이틀 아래 한국의 얼을 간직한 피아노 곡 24 곡으로 구성된 이 음반은 이소정 동문이 올해 Illinois Arts Council 에서 Grant 를 받아 제작한 것이다. 수록곡들은 그간

세종음악경연대회에서 연주된 지정곡들로서 김미숙 동문 (음 82, Wheaton Conservatory 교수) 외 작곡가 10 명이 대회를 위해 창작한 것이다. 이소정 동문은 이 음반의 판매권을 세종문화회에 기증했으며 따라서 수익금은 모두 세종문화회에 기부된다. CD 및 악보는 세종문화회 웹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하며, 현직 피아노 교사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된다. Spotify, Apple Music 과 세종문화회 웹사이트에서 sample audio 를 확인할 수 있다.

List of Compositions

| | |
|---|-------------------|
| 1. Arirang Fantasia (2005) | Hyuk Cha |
| 2. Beggar's Song (2006) | Dongil Shin |
| 3. Longing for the Sun (2006) | Dongil Shin |
| 4. Song of Roasted Chestnut (2007) | Dongil Shin |
| 5. Ongheya (2008) | Jean Ahn |
| 6. Tae-Pyung-Ga (2010) | Eun Young Lee |
| 7. Yin-Yang: The Infinity (2010) | Misook Kim |
| 8. Kwe-Ji-Na Ching-Ching Na-Ne (2010) | Misook Kim |
| 9. Changbu Taryong (2010) | Misook Kim |
| 10. Mong (2012) | Heeyoung Yang |
| 11. Rang, Rang (2013) | Eun Young Lee |
| 12. Milyang Arirang (2014) | Teddy Niedermaier |
| 13. Blue Bird, Blue Bird (2014) | Teddy Niedermaier |
| 14. Song of the Roasted Chestnuts (2014) | Teddy Niedermaier |
| 15. Distant Fields (2015) | Kyle Werner |
| 16. Arirang Variations for Piano Solo (2015) | Seung Ki Hong |
| 17. Curious Cuckoo (2016) | Heeyoung Yang |
| 18. Popping Chestnuts (2016) | Heeyoung Yang |
| 19. Fantasie from 'Hanobaeknyeon' (2016) | Insik Lee |
| 20. A Meandering Path: Toccatina (2017) | Heeyoung Yang |
| 21. Blue Wave: on a Theme of Arirang (2018) | Heeyoung Yang |
| 22. Balloon Flower Waltz in Wonderland (2019) | Heeyoung Yang |
| 23. Maiden's Circle Dance (2020) | Misook Kim |
| 24. The Phantom of Arirang (2020) | Misook Kim |

Performed by Sojung Lee Hong, piano
Recording/Mixing/Mastering: Gene Nemirovsky
Recorded at Peninsula Chicago, IL, U.S.A.
© 2020 All Rights Reserved

FROM EAST TO WEST

Twenty-four piano solos
based on Korean folk songs

Composed by
Jean Ahn
Hyuk Cha
Seung Ki Hong
Misook Kim
Eun Young Lee
Insik Lee
Teddy Niedermaier
Dongil Shin
Heeyoung Yang
Kyle Werner

Sojung Lee Hong, Piano

This project is partially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Illinois Arts Council Agency.

표창패 및 감사패 증정 한경진 전 회장과 김병윤 전 회장이 서울대 총동창회장으로 부터 공로상 표창패를 수령했다. 지난 8 월에 열린 미주 동창회 평의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상패는우편배송으로 전달받게 됐다. 한경진 동문은 시카고 동창회장과 미주 동창회 회칙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김병윤 동문은 시카고 동창회장으로 재임하며 동창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한 바 있다.



김병윤 전 회장은 지난해에 동창회를 위하여 너무나 정성스럽고 희생적인 봉사를 아끼지 않고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 동문들간에 화합을 도모하는 일에도 힘을 썼기에 전체 동문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증정하다.

2020 년 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 |
|--------------|----------|
| 김영재 (약대 46) | 1 월 2 일 |
| 박창진 (문리대 47) | 1 월 4 일 |
| 김일훈 (의대 51) | 5 월 31 일 |
| 노갑준 (의대 73) | 6 월 27 일 |
| 유성모 (미대 82) | 8 월 14 일 |
| 반용균 (의대 53) | 9 월 10 일 |





차기 회장 인사 (김윤하, 공대 66)

우리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동창회는 39 년전에 창립된 이래 장족의 발전을 해왔습니다. 근년 들어서는 여름야유회, 연말총회 및 송년회는 물론 춘추계 골프대회를 매년 개최하는가 하면 Golden Club, 관악 Club, 음악회, 댄스 동호회, 미식가 모임, 독서 Club 등의 활동도 점점 더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학금 수혜자도 13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우리 동문들이 시카고 지역에서 합심하여 모일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여 주신 동문 선배님들의 노고, 관악 Club 회원들의 헌신적인 참여 그리고 본 동창회를 위해 아낌없이 후원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들은 모교에 다시금 긍지를 느끼고 세종문화회를 비롯한 지역사회 보조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020 년 초 미국을 위시해 전 세계에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종 모임들이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창회 역시 많은 행사를 취소하거나 대체행사로 갈음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동문분들은 바이러스에 굴복하지 않고 모두 무사하셨고 이는 우리 동창회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가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와 병원 입원자 수가 매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어 많은 이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백신이 개발돼 2021 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창회 역시 이에 발 맞춰 행사를 진행해야 하나 시카고 동문님들의 연세가 높아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여 신축년 새해에는 일단 모든 행사와 모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되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하나 둘씩 실제 실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문 여러분, 새해에도 많은 조언과 참여로 우리 동창회를 사랑하고 아껴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다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차차기 회장 추천 소감 (김승주, 간호대 69)

안녕하세요 선후배 동문님들,
올 한해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해였기도 합니다. 지난 세월동안 이런 시간이 제게 필요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복잡하고 신경쓸 일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이에 망설인 것도 사실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차차기 회장직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와 제 남편의 삶에서 서울대학교 동창회는 큰 의미를 차지하고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동창회를 통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오랜 세월을 함께 했으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또 주고 있습니다. 동창회를 위해 봉사함으로 조금이나마 보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족한 저를 시카고 서울대학교 동창회장으로 추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학기금 관리 위원회 보고 (위원장 : 구경회)

SNUAA-Chicago Scholarship Fund Status

| | |
|-----------------------------------|------------|
| Balance on January 1, 2020 | \$170,152 |
| Investment Income | \$15,716 |
| Transfer from SNUAA Account | \$19,500 |
| Scholarship Payments (\$2,000x13) | (\$26,000) |
| Balance on December 3, 2020 | \$179,368 |

서울대 시카고 동창회 2020년 예산 및 결산보고

| | 항 목 | 2019 예산 | 2019 집행 | 2020 예산 | 2020 집행 |
|-----------------|---------------------|---------------------|----------------------|---------------------|---------------------|
| 수입 | 이사회비 | \$ 14,000.00 | \$ 14,800.00 | \$ 15,600.00 | \$ 11,000.00 |
| | 동창회비 | \$ 3,600.00 | \$ 4,650.00 | \$ 4,500.00 | \$ 2,160.00 |
| | 장학기금 후원금 | \$ 4,000.00 | \$ 14,300.00 | \$ 10,000.00 | \$ 14,120.00 |
| | 일반경비 후원금 | \$ 1,000.00 | \$ 4,415.00 | \$ 2,000.00 | \$ 1,800.00 |
| | 골프대회 수익금 | | \$ 112.26 | | |
| | 2차 이사회 식비 보조 | \$ 1,000.00 | \$ 1,670.00 | \$ 1,600.00 | |
| | 총회/송년회 회비 | | | \$ 9,000.00 | |
| | 기타 | \$ 200.00 | | | |
| | 수입 합계 | \$ 23,800.00 | \$ 39,947.26 | \$ 42,700.00 | \$ 29,080.00 |
| 지출 | 일반 경비 | | | | |
| | 사무비용 | \$ 1,000.00 | \$ 1,136.30 | \$ 1,000.00 | \$ 365.38 |
| | 광고비용 | \$ 1,500.00 | \$ 1,724.65 | \$ 1,500.00 | \$ 800.00 |
| | Newletter 발간 | \$ 1,000.00 | \$ 649.58 | \$ 600.00 | |
| | Website 비용 | \$ 500.00 | \$ 500.00 | \$ 500.00 | \$ 500.00 |
| | 세무보고 | \$ 1,000.00 | \$ 975.00 | \$ 1,000.00 | \$ 1,075.00 |
| | 1차 이사회 경비 | \$ 6,000.00 | \$ 7,560.54 | \$ 5,000.00 | |
| | 2차 이사회 경비 | | | \$ 700.00 | |
| | 임원회/위원회 모임 | \$ 1,500.00 | \$ 2,424.11 | \$ 2,000.00 | \$ 971.08 |
| | 야유회 경비 | \$ 3,000.00 | \$ 3,369.17 | \$ 3,000.00 | |
| | 총회/송년회 경비 | | \$ 1,391.24 | \$ 10,000.00 | |
| | 동아리 모임 | | \$ 498.00 | \$ 500.00 | |
| | 경조사 | \$ 1,000.00 | | | |
| | 예비비 | \$ 1,200.00 | \$ 110.00 | \$ 800.00 | |
| | (소계) | \$ 17,700.00 | \$ 20,338.59 | \$ 26,600.00 | \$ 3,711.46 |
| | 행정지원 | | | | |
| | 관악클럽 지원 | \$ 1,000.00 | \$ 1,000.00 | \$ 1,000.00 | \$ 1,000.00 |
| | 골든클럽 지원 | \$ 200.00 | \$ 1,230.00 | \$ 200.00 | \$ 200.00 |
| | 평의원회 참석 지원 | \$ 500.00 | \$ 500.00 | \$ 500.00 | |
| | (소계) | \$ 1,700.00 | \$ 2,730.00 | \$ 1,700.00 | \$ 1,200.00 |
| | 기부금 | | | | |
| | 본국 동창회 | \$ 1,200.00 | \$ 1,200.00 | \$ 1,200.00 | \$ 1,200.00 |
| | 재미 동창회 | \$ 1,200.00 | \$ 1,200.00 | \$ 1,200.00 | \$ 1,200.00 |
| | 세종 문화회 | \$ 1,000.00 | \$ 1,000.00 | \$ 1,000.00 | \$ 1,000.00 |
| | 지역 사회 단체 | \$ 1,000.00 | \$ 1,000.00 | \$ 1,000.00 | \$ 1,000.00 |
| | 예비비 | | | | |
| | (소계) | \$ 4,400.00 | \$ 4,400.00 | \$ 4,400.00 | \$ 4,400.00 |
| | 장학후원금 장학기금으로 이체 | | \$ 14,300.00 | \$ 10,000.00 | \$ 14,120.00 |
| 운영 잔액 장학기금으로 이체 | | | | \$ 5,380.00 | |
| 지출합계 | \$ 23,800.00 | \$ 41,768.59 | \$ 42,700.00 | \$ 28,811.46 | |
| | 운영 잔액 | | \$ (1,821.33) | \$ 268.54 | |

| | | | |
|-------------------------|--------------|---------------------|---------------------|
| Checking Account | 전년도 이월 | \$ 3,264.77 | \$ 1,443.44 |
| | 운영잔액 | \$ (1,821.33) | \$ 268.54 |
| | 연말 잔액 | \$ 1,443.44 | \$ 1,711.98 |
| Savings Account | 전년도 이월 | \$ 40,235.52 | \$ 40,253.79 |
| | 이자 수입 | \$ 18.27 | \$ 3.31 |
| | 연말 잔액 | \$ 40,253.79 | \$ 40,257.10 |

Year-End Cash Total (Checking + Savings) \$ 41,697.23 \$ 41,969.08

2020 년도 회비/이사회비/후원금 납부자 명단

회비 (\$30) 강영국 강원민 곽영로 구경희 김동희 김병윤 김사직 김승주 김연화 김영호 김옥자 김용주 김용환 김윤태 김윤하 김현석 김정수 김중호 김학수 김혜란 김호범 노영일 박동수 박용준 박장열 박종희 백준철 소진문 송재현 신석균 안인숙 양선희 연경자 오병진 왕진한 원인숙 유동완 유희두 윤봉수 이동균 이성우 이소정 이소희 이승자 이영우 이용락 이재호 이정숙 이정일 이철주 임이섭 임현재 장기남 장영수 장윤일 장항순 정승규 정성일 조규승 조대현 조봉완 조용효 조형원 최순강 최승정 한경진 한의일 한재은 홍청일 홍하웅 홍혜례 황치룡 (합계: 72 명, \$2,160)

이사회비 (\$200) 강영국 강원민 곽영로 구경희 김병윤 김사직 김연화 김영호 김용주 김윤태 김윤하 김학수 김현석 김호범 노영일 박동수 박용준 박장열 백준철 소진문 신석균 안인숙 연경자 오병진 왕진한 원인숙 유희두 윤봉수 이동균 이성우 이승자 이영우 이용락 이재호 이정숙 이정일 이창호 임현재 장기남 장영수 장윤일 장항순 정성일 정승규 조규승 조대현 조봉완 조형원 한경진 한의일 한재은 홍청일 홍하웅 홍혜례 황치룡 (합계: 55 명, \$11,000)

장학 후원금 강원민 (\$300) 김신웅 (\$5,000) 김용환 (\$100) 김윤태 (\$300) 김호범 (200) 구경희 (\$500) 유동완 (\$200) 윤봉수 (\$300) 이용락 (\$1,000) 임이섭 (\$200) 장윤일 (\$2,000) 조규승 (\$1,000) 조형원 (\$500) 최승정 (\$20) 한경진 (\$1,000) 한의일 (\$200) 한재은 (\$300) 유기천총장기념사업회 (\$1,000) (합계: \$14,120)

일반 후원금 오병진 (\$300) 이용락 (500) 장윤일 (\$1,000) (합계: 1,800)

총합계: \$29,080

고인된 남편뜻 이어 장학금 쾌척: 고 김운경 동문 미망인, 시카고 동창회에 \$5,000 기부

고 김운경 동문 (치대 57)의 3 주기를 맞이해 배우자 김신웅 동문 (사대 59)이 시카고 동창회 장학사업에 \$5,000 을 쾌척했다.

고 김운경 동문은 경기고등학교 재학 중 발발한 6.25 동란으로 졸업이 늦어져 1961 년에야 치과대학을 마칠 수 있었다. 이후 보사부 치무과 치무계장으로 근무하며 김신웅 동문과 결혼, 1970 년에 시카고로 이민왔다. 뉴욕대 치과대학에서 수학했으며 뉴욕과 일리노이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시카고와 노스부룩에서 개업, 46 년간 클리닉을 운영하다 2013 년에 은퇴했다.

고 김운경 동문은 시카고 동창회 이사로 1993 년부터 2005 년까지 수고한 바 있다. 작고한 지 3 주기였던 지난 11 월 22 일 김신웅 동문은 후학 양성을 바라던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후원금을 전달하고 장학사업에 많은 결실이 있기를 기원했다.

이 후원금은 "김운경 장학생"이라는 이름으로 2021 년 선발되는 장학생 중 두 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고 김운경 동문(우)
김신웅 동문
부부

2020 SNUAA Scholarship Awards

Jiwhey Chung Scholarship



Two “Jiwhey Chung Scholarships” are awarded in 2020 by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Chicago Area based on the scholarship funds contributed by the family of the late Dr. Jiwhey Chung.

The late Dr. Jiwhey Chung received his B.S. in Microbiology fr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M.S. in Biology from the University of Illinois, and Ph.D. in Biochemistry from the University of Tennessee. Following his research activities in the Albert Einstein Medical Center in Philadelphia, he made major accomplishments a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Medicine and Biochemistry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over 20 years.

An example of his research accomplishments is shown in the following publication: Jiwhey Chung, et. al, “Isolation, Properties, and Mechanism of in Vitro Action of Lecithin: Cholesterol Acyltransferase from Human Plasma,”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Vol. 254, No. 15, pp.7456-7464, 1979. <https://www.jbc.org/content/254/15/7456.full.pdf>

He also served as President of Chicago Chapter of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its formative years, served on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Chicago Area, and has been an active member of its Golden Club.

The following two candidates are chosen as the “Jiwhey Chung Scholarship” recipients based on their major field similar to that of the late Dr. Jiwhey Chung:

- Lauren Kim, Harvard University, major in Bioengineering, Chemistry
- Christine Ha, Ohio State University, major in Biochemistry



Lauren Kim (김채영), Harvard University, B.S. in Bioengineering, Chemistry
Jiwhey Chung Scholarship recipient

“Growing up, my grandmother’s storytelling unknowingly planted the seed that blossomed into my curiosity for neuroscience and appreciation for service. So when my grandmother was diagnosed with Alzheimer’s disease, it seemed impossible, almost unreal. I found myself in a frustrated fit of tears and emotions as an earthquake of disbelief shattered the relationship I had valued so dearly my entire life. Even though I had no idea where it would take me, I was excited to tackle this electrical roller coaster of neurotransmitters and behavior. Through a partnership with Chicago Methodist Senior Services, I trained to become an art and music therapist for dementia patients and led a program at school called Bringing Art to Life. Implementing my new knowledge with my grandmother, I watched as shimmering flowers revived bits of her old personality, complete with messy CrayPas hands and a passion for twilight music. When she titled her favorite painting ‘Storytime’ after a year of therapy, I felt an inexpressible wave of emotions rushing through my veins. She hadn’t let mental illness dominate her character -- she was still my grandmother, her heart sitting by the crackling fireplace in loving remembrance of the stories we’d once shared together.”



Christine Ha (하진주), Ohio State University, B.S. in Biochemistry (Grandfather is SNU alumnus)
Jiwhey Chung Scholarship recipient

“In the past two years I have served twice on missions in Santo Domingo, Mexico, full of gorgeous pueblos and the kindest people. During the trip, we encountered locals beyond the innocent, bubbly children we primarily have worked with. But whether it applied to rowdy teenagers or ill older men, I recognized the overflowing amount of joy that they had in life despite the many deficiencies I saw; in their eyes we seem to have so much more than them, but they lead much happier lives. This idea that no one should be satisfied with the kind of life that they lead is what compelled me to pursue a career in the medical department. The children of this village have skin diseases that I have only seen through textbooks, have teeth that can only be left to rot, and curable illnesses whose medicines are unaffordable. Pursuing this career path will fill me with the knowledge I need to help these families to lead a healthier and a more deserving life.”

2020 SNUAA Scholarship Awards



Minki Kim (김민기), University of Michigan, Ph.D. in Mechanical Engineering & Scientific Computing (Received B.S. in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from SNU; Father is SNU alumnus)

“During my undergraduate stud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 had a great privilege to be inspired by SNU alumni who are now global leaders in various fields and to be mentored by leading professors in Korea and passionate colleagues in SNU. Desiring to follow their trajectories, I was motivated to broaden my perspective on the engineering research and with endless support from mentors, I started my Ph.D. study in Mechanical Engineering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in 2016. I sincerely appreciate SNU Alumni Association in Chicago for granting the scholarship to aspiring students, which not only provides funding but also gives an opportunity for students to hear and learn invaluable experiences from SNUAA alumni, to get involved in SNUAA community, and to get a chance to communicate with other talented scholarship recipients.”



Sanghee Kim (김상희), University of Chicago, Ph.D. in Linguistics (Received M.A. i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from SNU; Father is SNU alumnus)

“My ultimate goal is to share and popularize fascinating aspects of human language with the public. We might have asked ourselves, “How does a seven-year-old girl in my neighbor speak three languages when I cannot master a single ‘r’ sound in English?” or “How do we speak language so effortlessly when we were not able to comprehend a single word or produce a meaningful sound as a toddler?” or “What makes me think that someone is

speaking politically?” While theoretical explanations to these questions abound in the academic journal papers,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theoretical accounts without having any background knowledge in linguistics. I aim to serve as a “linguistics interpreter,” who explains theories and important findings in linguistics to non-linguists in layman’s terms in a fun and easy way. With the goal of becoming a linguistics interpreter, I also work on understanding other fields that can be linked to linguistics. I attempt to build connections between linguistics and psychology, computer science, and cognitive neuroscience, in specific.”



Amber Kim (김영은),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aster in City Planning (Father is SNU alumnus)

“In many ways, I achieved exactly what I had wanted for so long – I was in the trenches of policymaking and advocacy, quickly reaching the position of Policy Director at the Waste Reuse Association. Nevertheless, I did not feel fulfilled. Working on high-level policies and political goals on the timescale of years, I felt removed from the on-the-grounds progress being made across the country. I wanted to see and be part of the projects being implemented. After sitting with this feeling for a few years, I decided to pursue a career shift

to become an environmental planner working on climate change at the city or regional level. As a Korean-American woman who grew up in the Chicago area, I would be especially proud to receive a scholarship from an organization such as the SNUAA-Chicago that seek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Korean students. I believe this mission is critical to ensuring the continuation of a strong Korean community in the Chicago a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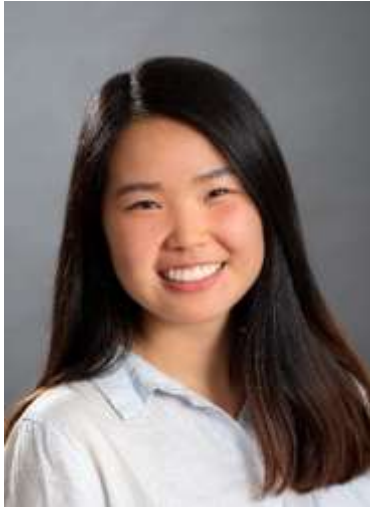


Abigail Lee (이정희), University of Chicago, Ph.D. in Astrophysics (Both Grandparents are SNU alumni)

“I first became interested in astrophysics through classes during my undergrad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I decided I wanted to pursue opportunities in astrophysics research, so I applied to be and worked as an intern at the NASA Jet Propulsion Lab. I then spent a month abroad studying black holes as a research assistant at the Max Planck Institute for Gravitational Physics in Germany. It was there that I first became interested in research in cosmology, the science of the origin, evolution, and eventual fate of the universe. Throughout my

diverse research experiences, I have enjoyed studying astrophysics because of its potential to better understand two of humankind’s deepest questions: How did the universe come to be, and what does the future hold? These questions inspire and motivate my current research and future research goals. After I graduate from my Ph.D., I am excited about the opportunity to pursue a career as a University Professor.”

2020 SNUAA Scholarship Awards



Eunice Yoon (윤채리),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B.S. in Mechanical & Aerospace Engineering

“Being part of the first generation in my family that will graduate with a college degree, I am grateful for those who came before me, working hard every day despite the challenges. Receiving this scholarship will contribute to financing my higher education at Caltech and enabling my technical career aspirations. Additionally, it will highlight my Korean heritage and reflect on my parents’ experiences of immigrating to and settling down in the Chicagoland area. Being awarded this scholarship means so much because wh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Chicago stands for is ultimately the foundation for who I am today. I am thankful for how the association takes an extra step to encourage Korean-American students and am excited to be a recipient of the scholarship award.”



Seungmin Lee (이승민), Michigan State University, M.S. in Kinesiology (Received M.A. in Physical Education from SNU)

“In studying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in the master’s program of Sport Scienc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12, I became convinced of the importance of research work for the enhancement of public health and quality of life through physical activity. I decided to study for a doctoral degree at Michigan State University, to guide my future academic achievements and productivity. Since being admitted to MSU, I have dedicated myself to physical activity studies, including physical activity intervention review study, exploratory physical activity intervention study, and physical education study.

The goal of my research is to enhance people’s quality of life through physical activity. This has motivated me to continue my further study in the doctoral program of Kinesiology at MSU, where I can achieve this dream. The SNUAA-Chicago Scholarship would provide me with an opportunity to reach my full potential and make important contributions to individual’s well-being and physical activity.”



Daniel Kim (김정훈),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M.S. in Civil Engineering (Both Parents are SNU alumni)

“My experience as a Korean-American is one made by the sacrifices and generosity of others. Had it not been for the sacrifices of my immigrant parents, the support of local communities, or grants from even strangers alike, the wealth of opportunity I enjoy today would not be so broad. I, therefore, do not take for granted the support that I’ve received, and likewise, am honored to have been selected as a 2020 SNUAA Chicago Scholarship recipient. I intend to pay forward those who have uplifted me and aspire to attend to the needs of others especially when it is within my

power to act. With this scholarship, I plan to maximize my capacity to serve by pursuing a civil engineering master’s from the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As a civil engineer, I will take advantage of both my analytical skills and my passions for creative design to most effectively help improve the standards of living in underprivileged neighborhoods and encourage economic mobility in neglected communities. For all that I gain from even this scholarship opportunity alone, I will commit to investing into others, and I will pursue to be integral in the hopeful trajectory of our world.”



Jonathan Lee (이영모), Stanford University, B.A. in Economics

“My journey to discovering my passion for social business began with On the Money (OTM) magazine,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publishes a financial literacy and entrepreneurship magazine for 9,000+ low-income youth in Chicago. As President, I led a community of interns who were determined to use effective business practices for revitalizing our neighborhoods. I created financial literacy workshops, spoke at conferences, and created curricula for schools. I spearheaded impactful projects, such as partnering with a non-profit digital media group to design financial literacy modules that former Mayor Rahm Emanuel used to train 32,000+

youth during his annual ‘One Summer Chicago’ internship program. Inspired by what I learned from OTM, I entered my freshman year at Stanford eager to improve access to education and further explore social business. I applied to and joined the Stanford Social Entrepreneurial Students Association, Stanford’s premier social entrepreneurial student organization. I joined as marketing manager and was responsible for our social media platforms and website, creating marketing materials, and promoting our events and initiatives. Most importantly, I saw expanding interest in social entrepreneurship from our student body.”

2020 SNUAA Scholarship Awards



Lauren Jung (정희민), Cornell University, B.S. in Food Science w/ emphasis in Business Operations Management

“My aspiration in life is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global sustainability, nutrition, and affordability via food. This past summer I worked for an international company, Unilever, and was able to verify that this was my passion for the field. As a Food Science major, my love and appreciation for food stems back to my childhood. My first interaction in this field was in the sixth grade through my participation in Science Olympiad. I recall being fascinated and astonished at the scientific complexity that

went into a single of Cheez-it. It led me to appreciate and respect all the laborious work that went behind each product. My parents were both workaholics and always worked ridiculously long hours. This left me the responsibility of taking care of my brother, who is six years younger than me. This included the challenge of cooking a meal for him in the kitchen. This was when I first started experimenting in the kitchen and relied heavily on brands that assisted my cooking such as Knorr and Korean brands such as **오뚜기**. These became a household staple for us. Without the food scientists who touched these brands, I would have never been able to get to the place that I am today. Out of my thankful heart I would love the chance to give back and further advance findings and technologies.”



Sunny Park (박선희), Midwestern University, Doctor of Pharmacy

“My long term aspiration in life is to become a hospital pharmacist. As a pharmacist, I know that I can work directly with patients to help them get better. Rather than sitting behind a computer screen all day making phone calls, I would rather interact with patients and discuss with them about any illnesses or diseases they suffer from. Additionally, I want to assure that the drugs prescribed by physicians are the most suitable and the most optimal for the patients. Another guaranteed reward that pharmacists receive is opportunity, something I value profoundly. Opportunities allow me to live my life to its full potential,

taking advantage of what they provide. Not only do pharmacists get career path opportunities, such as patient care, scientific research, counseling, or consulting, but the social and cultural aspects are included as well. As a future pharmacist, I am adamant that I will receive many more experiences. Each experience will give me more knowledge about pharmacy, medicine, and even social interactions. I wish to develop interpersonal skills, analytical strategies, and a keen eye for small details. In my future occupation, I hope to be trusted by my patients, respected by my community, and knowledgeable on different drugs. My innate curiosity of chemistry drives me to become a pharmacist despite the hardships that this path holds. My dream is to advise patients to get the help they deserve, and possibly make a change in people’s lives no matter how big or small. The journey of life is hard for everyone, but worthy for those willing to take chances with an optimistic mindset.”



Sora Heo (허소라),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B.A. in International Studies – Economics/Arabic minor

“Through a college volunteering program, I fostered relationships with Palestinian refugees in the San Diego area. I was vaguely familiar with the Israel and Palestine conflict, yet their words illustrated their plight viscerally. My encounter with refugees did not end there. When I came home for winter break, my parents invited me to a church event in Chicago where I was able to listen to a North Korean defector speak about her disheartening realities: separation from family, trafficking, relentless battles for survival, to name a

few. Crossing the DMZ is the riskiest and most fearful endeavor anyone can take on, but hope on the other side speaks to many, she said. These vibrant bonds prompted an epiphany: their plight was a byproduct of the lack of diplomacy and active resolution among modes of governance. This ignited a flame in me: more than ever, diplomacy is critical. Diplomats are granted the task to create, preserve, and repair relationships between nation states by engaging in complex dialogues and negotiations. I see being a diplomat as an invaluable opportunity to understand different cultures along with the complexity of life in other nations. To me, diplomacy is empathy. In the future, I aspire to become a change-maker through foreign service, impacting policy to reflect globalism and basic empathy. In our own Korean community, I am inspired by former UN secretary general Ban Ki Moon who has been a proponent of peace on the world stage, reminding us that we are all citizens of the world.”

서울대 시카고 동창회 35주년 기념 주소록 및 총람

2018년에 발간된 주소록 및 총람을 받지 못하신 동문은 이름 (한글, 영어),
단과대학, 학번 (입학연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본 동창회 이메일

snuachicago@gmail.com

로 보내주시면 주소록 및 총람 (254 page)을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